

입학전형 및 학년별 간호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 융합비교연구

김정애¹, 강지순^{2*}, 서금숙³

¹경북대학교 간호학과, ²한세대학교 간호학과, ³가야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ung-Ae Kim¹, Ji-Soon Kang^{2*}, Keum-Sook Seo³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ansei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입학전형 및 학년별 간호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P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9명이며, 자료수집은 2016년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test, ANOVA, Scheffé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입학전형에 따른 전체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전체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p=.001$), 전공만족도($p<.001$), 진로정체감($p=.021$), 대학생활적응($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과 스트레스는 2,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진로정체감은 3학년,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입학전형별, 학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 **주제어** : 융합,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대학입학전형,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The 349 subjects were studying in the nursing department in the City P. And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April 2016 until May 2016.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frequency, the percentage, the χ^2 -test, and the ANOVA by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garding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ntire academic years according to the admission type. Second, regarding all the admission types according to the academic year,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tress ($p=.001$),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p<.001$), the sense of career path identity ($p=.021$), and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p<.001$). As a result, I propose that,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research, as a strategy for reducing the stress and for improv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sense of career path identity, and the capability to adapt to the college life on the part of the nursing students, a differentiated,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by type of admission and by academic year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 **Key Words** : Convergence, Career Identity, College Adjustment, College Admission Process, Major Satisfaction,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강지순(lemueljs@gmail.com)

Received January 3, 2017

Revised February 5,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선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재개발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어 대학의 신입생 선발유형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 및 학생부 교과영역(내신)뿐 만이 아닌 지원자의 성장가능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및 비교과 전형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정시 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영역이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되어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활용하여 선발하고 있다[1]. 비교과 전형은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 전공 적합성 등을 중시하는 입학전형이며 학교생활기록부와 각종 서류, 면접을 통하여 인성적 영역, 전문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전공적 영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와 다른 점은 산업체 인사가 평가에 필수로 참여하고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 등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입학전형의 본질은 대학 수학능력이 있는 자, 특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별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다[1]. 입학전형과 관련된 국내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적응 등과 연관된 연구결과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전형요소로 선발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이수 가능성을 확인하여 최적의 입학전형 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1,2]은 정시 전형에 비해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거나[1]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시 전형 학생들과 수시 전형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2] 수시 전형이 학업성취도 및 고교생의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응과 이탈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1]. 대학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중도탈락 또는 학교 이동 계획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 Shin[1]과 Chung과 Cho[3]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활만족도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생의 입학전형 차이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연구

한 Shin[1]과 Kim[12]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 전형이나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4년 P시의 K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4]에서는 비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정시 전형이나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 연계하여 대학생활적응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3,5-8].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9,10]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1],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등을 비교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로는 입학전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Han과 Baef[2]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입학전형이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 두 전형만이며, 학생부 비교과영역으로 선발하는 입시사정관제 전형이나 비교과 전형까지를 조사한 대학생활적응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등을 연구한 여러 문헌[6,7, 11-13]에서는 대상자 및 대상자의 전공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바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비교과 전형으로 전공만족도가 높고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신입생을 선발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간호 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학생선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이를 정시 전형, 수시 전형 및 비교과 전형 등 세 개의 입학전형에 따라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학년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선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입학전형에 따른 학년별 진로지도와 학업 및 대학생활적응 맞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입학전형 및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에 관해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전형에 따른 학년별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입학전형별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입학전형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P시 소재의 K대학교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정시 전형, 수시 전형 및 비교과 전형으로 선발된 1, 2, 3학년 학생이다. 입학전형은 모집시기와 전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모집시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정시모집기간에 실시되는 정시 전형(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반영),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실시되는 수시모집 중 수시 전형(학생부 교과영역 80%, 면접 20% 반영) 및 비교과 전형(학생부 비교과영역 및 추천서 10%, 1박 2일 동안의 심층면접 90%) 등 3개의 입학전형 입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 107명, 2학년 137명, 3학년 105명 등 총 349명으로 본 연구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출프로그램 G Power 3.10프로그램[14]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25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 검정에서 표본크기는 305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자수

349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hun, Kim과 Lee[15]가 개발한 총 50문항의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Kim[16]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과정 등에서 17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33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만을 묘사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참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의 빈도를 0점 '전혀'에서 3점 '자주'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4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Ha의 연구[17]에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Lee[18]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5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 및 Power[19]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를 Kim[20]이 번안한 후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하도록 되어있는 척도를 4점 Likert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채점은 역환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9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21]가 개발한 총 6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9점 척도를 Hyun[22]이 번안하였다. 번안한 Likert식의 9점 척도를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재구성한 67문항 중 특정 거주 형태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3문항을 제외시킨 64문항으로 구성된 Kim[23]의 도구로 연구한 Oh[24]의 결과에 따라 57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응,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구에 관한 사회적 적응, 심리적 또는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개인-정서적응,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는 대학환경 적응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하위 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Oh[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2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8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IRB 승인(83호)을 받았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설문 소요 시간 10분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회수된 설문지는 351 부였고, 이 중 미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34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은 빈도, 백분율, χ^2 -test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 비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입학전형 및 학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별로 정시 전형, 수시 전형, 비교과 전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입학 시 만족도에서 정시 전형(22.3%)이 수시 전형(13.4%), 비교과 전형(5.6%)보다 많이 불만족/매우 불만을 선택하여 정시 전형 학생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9.626$, $p<.001$). 대학입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에서 정시 전형은 본인(49.2%), 부모님(34.1%), 선생님(7.1%) 순으로 수시 전형은 본인(62.7%), 부모님/권유(17.9%), 기타(11.9%)였고 비교과 전형은 본인(50.6), 부모님(27.0%), 선생님(19.1%) 순으로 높았다($\chi^2=30.128$, $p<.001$). 진학 동기를 보면 정시 전형은 취업률(34.1%), 적성·흥미(24.6%)였고, 수시 전형은 적성·흥미(39.6%), 전문직(21.6%)순으로 높았으며 비교과 전형은 적성·흥미(36.0%), 권유(23.6%)순으로 높았다($\chi^2=25.734$, $p=.004$).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입학 시 만족도에서 1학년은 만족(40.2%), 보통(38.3%), 매우만족(14.0%)순이었고, 2학년은 보통(48.2%), 만족(32.5%), 불만(15.3%)순이었다. 3학년도 보통(50.5%), 만족(30.5%), 불만(12.4%)순이었다($\chi^2=31.072$, $p<.001$)(Table 1).

3.2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비교

응답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년별로 보았을 경우 1학년에서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F=4.844$, $p=.014$)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비교과 전형이 수시 전형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스트레스($F=2.791$, $p=.066$), 진로정체감($F=0.752$, $p=.474$), 대학생활적응($F=2.100$, $p=.128$)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학년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F=3.713$, $p=.027$), 대학생활적응($F=4.274$, $p=.016$)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수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보다 높았고,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 스트레스($F=1.142$, $p=.322$), 진로정체감($F=0.119$, $p=.888$)

<Table 1> The tests of the general, special characteristics and the homogeneity according to the admission type and the grade. (N=3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Admission Type				Grade			
		Regular Admission	Rolling Admission	Non-Curricular Admission	χ^2 (P)	Freshman	Sophomore	Junior	χ^2 (P)
Gender	Male	29(23.0)	18(13.4)	11(12.4)	5.868 (.053)	25(23.4)	18(13.1)	15(14.3)	5.124 (.077)
	Female	97(77.0)	116(86.6)	78(87.6)		82(76.6)	119(86.9)	90(85.7)	
Grade/ Admission Type	Freshman	31(24.6)	45(33.6)	31(34.8)	9.261 (.055)	31(29.0)	45(32.8)	50(47.6)	9.261 (.055)
	Sophomore	45(35.7)	57(42.5)	35(39.3)		45(42.1)	57(41.6)	32(30.5)	
	Junior	50(39.7)	32(23.9)	23(25.8)		31(29.0)	35(25.5)	23(21.9)	
Religion	Christian	32(25.4)	39(29.1)	34(38.2)	6.081 (.638)	33(30.8)	39(28.5)	33(31.4)	3.597 (.892)
	Catholic	16(12.7)	16(11.9)	9(10.1)		10(9.3)	17(12.4)	14(13.3)	
	Buddhist	3(2.4)	7(5.2)	4(4.5)		4(3.7)	4(2.9)	6(5.7)	
	Atheist	73(57.9)	70(52.2)	41(46.1)		59(55.1)	74(54.0)	51(48.6)	
Others	2(1.6)	2(1.5)	1(1.1)		1(0.9)	3(2.2)	1(1.0)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ied	5(4.0)	5(3.7)	9(10.1)	29.626 (.000)	15(14.0)	2(1.5)	2(1.9)	31.072 (.000)
	Satisfied	26(20.6)	54(40.3)	39(43.8)		43(40.2)	44(32.1)	32(30.5)	
	Medium	67(53.2)	57(42.5)	36(40.4)		41(38.3)	66(48.2)	53(50.5)	
	Unsatisfied	21(16.7)	16(11.9)	3(3.4)		6(5.6)	21(15.3)	13(12.4)	
	Very unsatisfied	7(5.6)	2(1.5)	2(2.2)		2(1.9)	4(2.9)	5(4.8)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62(49.2)	84(62.7)	45(50.6)	30.128 (.000)	64(59.8)	71(51.8)	56(53.3)	9.480 (.303)
	Parents' Recommendation	43(34.1)	24(17.9)	24(27.0)		30(28.0)	35(25.5)	26(24.8)	
	Teacher's Recommendation	9(7.1)	8(6.0)	17(19.1)		6(5.6)	16(11.7)	12(11.4)	
	Brother's/Sister's Recommendation	5(4.0)	2(1.5)	1(1.1)		1(0.9)	2(1.5)	5(4.8)	
	Others	7(5.6)	16(11.9)	2(2.2)		6(5.6)	13(9.5)	6(5.7)	
Person-to- Person Relationship	Very Good	23(18.3)	26(19.4)	18(20.2)	2.286 (.892)	24(22.4)	20(14.6)	23(21.9)	4.977 (.547)
	Good	71(56.3)	71(53.0)	53(59.6)		56(52.3)	78(56.9)	61(58.1)	
	Moderate	30(23.8)	35(26.1)	16(18.0)		25(23.4)	37(27.0)	19(18.1)	
	Bad	2(1.6)	2(1.5)	2(2.2)		2(1.9)	2(1.5)	2(1.9)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School Grades	6(4.8)	9(6.7)	3(3.4)	25.734 (.004)	10(9.3)	4(2.9)	4(3.8)	16.165 (.095)
	Recommendation	19(15.1)	15(11.2)	21(23.6)		14(13.1)	27(19.7)	14(13.3)	
	High Employment Rate	43(34.1)	21(15.7)	19(21.3)		27(25.2)	30(21.9)	26(24.8)	
	Aptitude and Interest	31(24.6)	53(39.6)	32(36.0)		37(34.6)	49(35.8)	30(28.6)	
	Professionalism	25(19.8)	29(21.6)	12(13.5)		16(15.0)	21(15.3)	29(27.6)	
Others	2(1.6)	7(5.2)	2(2.2)	3(2.8)	6(4.4)	2(1.9)			
Economic Level	Very High	6(4.8)	3(2.2)	4(4.5)	13.941 (.083)	2(1.9)	4(2.9)	7(6.7)	9.599 (.294)
	High	19(15.1)	14(10.4)	5(5.6)		10(9.3)	15(10.9)	13(12.4)	
	Middle	85(67.5)	84(62.7)	67(75.3)		70(65.4)	94(68.6)	72(68.6)	
	Low	14(11.1)	31(23.1)	11(12.4)		24(22.4)	21(15.3)	11(10.5)	
	Very Low	2(1.6)	2(1.5)	2(2.2)		1(0.9)	3(2.2)	2(1.9)	
Living Environment	With Parents	88(69.8)	93(69.4)	56(62.9)	5.441 (.710)	77(72.0)	89(65.0)	71(67.6)	9.473 (.304)
	With Relatives	1(0.8)	0(0.0)	1(1.1)		1(0.9)	1(0.7)	0(0.0)	
	Self-catering	14(11.1)	12(9.0)	8(9.0)		6(5.6)	12(8.8)	16(15.2)	
	Dormitory	23(18.3)	27(20.1)	23(25.8)		22(20.6)	33(24.1)	18(17.1)	
	Others	0(0.0)	2(1.5)	1(1.1)		1(0.9)	2(1.5)	0(0.0)	
Desired Career	Employment in Hospital	103(81.7)	111(82.8)	81(91.0)	15.227 (.055)	94(87.9)	121(88.3)	80(76.2)	12.267 (.140)
	Health Teacher	7(5.6)	7(5.2)	0(0.0)		5(4.7)	2(1.5)	7(6.7)	
	Industry Nurse	2(1.6)	6(4.5)	0(0.0)		1(0.9)	4(1.5)	3(2.9)	
	Public Service Personnel	12(9.5)	8(6.0)	4(4.5)		6(5.6)	8(5.8)	10(9.5)	
	Others	2(1.6)	2(1.5)	4(4.5)		1(0.9)	2(1.5)	5(4.8)	

<Table 2> The comparison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tress, sense of self-identity,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N=349)

Grade		Admission Type(Mean±SD)			F	P	Scheff
		Regular Admission a	Rolling Admissionb	Non-Curricular Admissionc			
Total of the Admission Types	Stress	0.55±0.40	0.59±0.38	0.55±0.41	0.422	0.643	b>a
	- Economic problem	0.53±0.64	0.75±0.70	0.58±0.58	4.048	0.018	
	- Relationship with friend	0.13±0.40	0.12±0.37	0.15±0.40	0.150	0.861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50±0.64	0.51±0.59	0.43±0.65	0.441	0.644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23±0.44	0.21±0.45	0.23±0.49	0.134	0.874	
	- Sense of value	0.71±0.63	0.73±0.72	0.71±0.73	0.060	0.942	
	- Relationship with family	0.44±0.62	0.36±0.60	0.33±0.48	1.163	0.314	
	- Academic problem	1.34±0.66	1.46±0.70	1.41±0.79	1.078	0.341	
	Major Satisfaction	3.53±0.59	3.56±0.52	3.51±0.68	0.197	0.821	
	General Satisfaction	3.61±0.66	3.72±0.61	3.62±0.80	0.953	0.387	
	Perception Satisfaction	4.11±0.65	4.15±0.63	4.02±0.68	0.982	0.376	
	Curriculum Satisfaction	3.18±0.77	3.15±0.76	3.26±0.78	0.564	0.570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22±0.85	3.22±0.84	3.15±0.89	0.235	0.791	
	Career Identity	2.30±0.66	2.27±0.63	2.19±0.58	0.830	0.437	
	College Adaptation	3.12±0.52	3.13±0.40	3.05±0.46	0.901	0.407	a>c b>a
	Academic Adaptation	3.00±0.49	2.93±0.42	2.96±0.39	0.967	0.381	
	Social Adaptation	3.10±0.61	3.08±0.52	3.05±0.56	0.175	0.840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07±0.60	2.95±0.55	2.85±0.58	4.191	0.016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29±0.72	3.56±0.65	3.33±0.73	5.507	0.004		
Freshman	Stress	0.49±0.38	0.50±0.34	0.33±0.23	2.791	0.066	a>c,b>c b>c
	- Economic problem	0.58±0.56	0.69±0.64	0.540±0.61	0.599	0.551	
	- Relationship with friend	0.15±0.45	0.12±0.38	0.03±0.13	0.963	0.385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41±0.68	0.40±0.55	0.03±0.08	5.873	0.004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16±0.43	0.08±0.26	0.17±0.41	0.692	0.503	
	- Sense of value	0.61±0.48	0.68±0.78	0.26±0.34	4.898	0.009	
	- Relationship with family	0.45±0.58	0.40±0.70	0.25±0.44	0.971	0.382	
	- Academic problem	1.05±0.58	1.10±0.53	1.03±0.68	0.166	0.847	
	Major Satisfaction	3.66±0.60	3.60±0.61	3.99±0.56	4.844	0.014	c>b c>b c>b
	General Satisfaction	3.65±0.70	3.60±0.72	4.00±0.58	3.367	0.038	
	Perception Satisfaction	4.22±0.69	4.14±0.70	4.46±0.67	2.692	0.073	
	Curriculum Satisfaction	3.36±0.76	3.26±0.77	3.70±0.68	3.382	0.038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40±0.76	3.41±0.73	3.77±0.73	2.792	0.066	
	Career Identity	2.22±0.71	2.13±0.64	2.02±0.60	0.752	0.474	
	College Adaptation	3.29±0.57	3.20±0.38	3.41±0.37	2.100	0.128	
	Academic Adaptation	3.16±0.49	2.97±0.39	3.19±0.33	3.455	0.035	
	Social Adaptation	3.25±0.78	3.09±0.53	3.38±0.43	2.248	0.11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26±0.51	3.08±0.50	3.17±0.49	1.151	0.320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48±0.80	3.65±0.64	3.90±0.58	3.045	0.052		
Sophomore	Stress	0.55±0.42	0.620±0.53	0.68±0.42	1.142	0.322	
	- Economic problem	0.50±0.67	0.80±0.73	0.60±0.58	2.572	0.080	
	- Relationship with friend	0.11±0.38	0.08±0.25	0.22±0.46	1.677	0.191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52±0.59	0.54±0.57	0.55±0.62	0.033	0.967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25±0.45	0.25±0.50	0.28±0.56	0.042	0.958	
	- Sense of value	0.70±0.62	0.70±0.63	0.98±0.69	2.393	0.095	
	- Relationship with family	0.42±0.71	0.29±0.45	0.48±0.57	1.273	0.283	
	- Academic problem	1.33±0.60	1.65±0.69	1.67±0.72	3.576	0.031	

Sophomore	Major Satisfaction	3.41±0.62	3.51±0.48	3.17±0.65	3.713	0.027	b>c
	General Satisfaction	3.52±0.67	3.74±0.54	3.24±0.87	5.925	0.003	b>c
	Perception Satisfaction	3.93±0.62	4.13±0.62	3.68±0.76	5.225	0.007	b>c
	Curriculum Satisfaction	3.09±0.78	3.11±0.75	2.91±0.75	0.798	0.452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10±0.96	3.06±0.91	2.87±0.86	0.728	0.485	
	Career Identity	2.25±0.56	2.31±0.60	2.29±0.62	0.119	0.888	
	College Adaptation	3.08±0.46	3.08±0.41	2.84±0.40	4.274	0.016	a>c,b>c
	Academic Adaptation	2.92±0.46	2.89±0.43	2.81±0.39	0.648	0.525	
	Social Adaptation	2.30±0.59	3.04±0.55	2.81±0.59	1.731	0.18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09±0.51	2.89±0.55	2.65±0.57	6.506	0.002	a>c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30±0.59	3.53±0.65	3.07±0.65	5.747	0.004	b>c	
Junior	Stress	0.60±0.40	0.68±0.47	0.63±0.48	0.349	0.706	
	- Economic problem	0.52±0.67	0.75±0.72	0.61±0.56	1.124	0.329	
	- Relationship with friend	0.13±0.41	0.18±0.53	0.19±0.49	0.187	0.829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55±0.67	0.61±0.68	0.80±0.84	0.994	0.374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27±0.46	0.30±0.54	0.22±0.48	0.179	0.837	
	- Sense of value	0.77±0.73	0.88±0.81	0.90±0.90	0.287	0.751	
	- Relationship with family	0.46±0.57	0.44±0.71	0.20±0.33	1.749	0.179	
	- Academic problem	1.51±0.72	1.64±0.75	1.52±0.85	0.324	0.724	
	Major Satisfaction	3.56±0.50	3.56±0.45	3.40±0.49	1.300	0.277	
	General Satisfaction	3.68±0.63	3.85±0.56	3.69±0.66	0.890	0.414	
Perception Satisfaction	4.213±0.63	4.20±0.59	3.95±0.72	1.484	0.232		
Curriculum Satisfaction	3.14±0.76	3.08±0.78	3.20±0.67	0.172	0.842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22±0.80	3.22±0.81	2.74±0.64	3.671	0.029		
Career Identity	2.39±0.71	2.39±0.67	2.25±0.46	0.375	0.688		
College Adaptation	3.04±0.53	3.11±0.41	2.87±0.36	1.743	0.180		
Academic Adaptation	2.97±0.50	2.94±0.44	2.88±0.30	0.357	0.701		
Social Adaptation	3.10±0.50	3.15±0.45	2.97±0.46	1.012	0.367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94±0.69	2.86±0.59	2.71±0.55	1.043	0.356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17±0.75	3.48±0.65	2.94±0.57	4.365	0.015	b>c	

a: regular, b: rolling, c: non-curricular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학년은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F=0.349, p=.706$), 전공만족도($F=1.300, p=.277$), 진로정체감($F=0.375, p=.688$), 대학생활적응($F=1.743, p=.180$)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3 입학전형에 따른 학년별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비교

응답자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F=7.569, p<.001$), 전공만족도($F=10.606, p<.001$), 진로정체감($F=3.907, p=.021$), 대학생활적응($F=13.047, p<.001$)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스트레스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높았다. 진로정체감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높았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 때 첫째, 정시 전형에서는 스트레

스($F=0.237, p=.790$), 전공만족도($F=1.803, p=.169$), 진로정체감($F=1.172, p=.313$), 대학생활적응($F=2.376, p=.097$)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수시 전형에서는 스트레스($F=2.495, p=.086$), 전공만족도($F=0.481, p=.619$), 진로정체감($F=1.812, p=.167$), 대학생활적응($F=1.118, p=.33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비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스($F=7.664, p=.001$), 전공만족도($F=16.640, p<.001$), 대학생활적응($F=21.87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스트레스는 2학년이 1학년보다, 3학년이 1학년 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 2학년 순서로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정체감($F=1.978, p=.145$)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The comparisons of the differences of the stress, the sense of self-identity,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rade. (N=349)

Admission Type		Grade(Mean±SD)			F	p	Scheff
		Freshmana	Sophomoreb	Juniorc			
Total of Grade	Stress	0.45±0.33	0.61±0.40	0.63±0.44	7.569	0.001	b>a,c>a
	- Economic problem	0.61±0.61	0.65±0.68	0.61±0.67	0.146	0.864	
	- Relationship with friend	0.10±0.35	0.13±0.36	0.16±0.46	0.487	0.615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30±0.53	0.53±0.58	0.62±0.71	8.067	0.000	b>a,c>a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13±0.36	0.26±0.50	0.26±0.48	3.027	0.050	
	- Sense of value	0.54±0.62	0.77±0.65	0.83±0.79	5.678	0.004	b>a,c>a
	- Relationship with family	0.37±0.60	0.38±0.58	0.39±0.58	0.036	0.965	
	- Academic problem	1.07±0.59	1.55±0.68	1.55±0.75	19.280	0.000	b>a,c>a
	Major Satisfaction	3.76±0.61	3.39±0.59	3.54±0.49	10.606	0.000	a>b,c
	General Satisfaction	3.74±0.69	3.54±0.71	3.73±0.62	3.428	0.034	
	Perception Satisfaction	4.26±0.69	3.95±0.68	4.15±0.64	6.685	0.001	a>b
	Curriculum Satisfaction	3.51±0.75	3.02±0.91	3.12±0.79	11.029	0.000	a>b, c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41±0.76	3.05±0.76	3.14±0.74	7.255	0.011	a>b, c
	Career Identity	2.12±0.65	2.28±0.59	2.36±0.65	3.907	0.021	c>a
	College Adaptation	3.29±0.45	3.02±0.43	3.03±0.47	13.047	0.000	
	Academic Adaptation	3.09±0.42	2.88±0.43	2.94±0.44	7.632	0.001	a>b,a>c
	Social Adaptation	3.22±0.60	2.97±0.58	3.09±0.48	6.307	0.002	a>b,a>c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16±0.50	2.89±0.56	2.86±0.63	9.068	0.000	a>b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68±0.69	3.34±0.66	3.21±0.71	13.473	0.000	a>b,a>c	
Regular Admission	Stress	0.49±0.38	0.55±0.42	0.6±0.407	0.755	0.472	
	- Economic problem	0.57±0.56	0.50±0.67	0.52±0.67	0.128	0.880	
	- Relationship with friend	0.15±0.45	0.11±0.38	0.13±0.41	0.086	0.918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41±0.68	0.52±0.59	0.55±0.67	0.476	0.622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16±0.43	0.25±0.45	0.27±0.46	0.564	0.570	
	- Sense of value	0.61±0.48	0.70±0.619	0.77±0.73	0.602	0.549	
	- Relationship with family	0.45±0.58	0.42±0.71	0.46±0.57	0.037	0.964	
	- Academic problem	1.05±0.58	1.33±0.60	1.51±0.72	4.894	0.009	b>a,c>a
	Major Satisfaction	3.66±0.60	3.41±0.63	3.56±0.50	1.803	0.169	
	General Satisfaction	3.65±0.70	3.52±0.67	3.68±0.63	0.744	0.477	
	Perception Satisfaction	4.22±0.69	3.93±0.62	4.21±0.63	2.921	0.058	
	Curriculum Satisfaction	3.36±0.77	3.09±0.78	3.14±0.76	1.181	0.310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40±0.76	3.10±0.96	3.22±0.80	1.102	0.335	
	Career Identity	2.22±0.71	2.25±0.56	2.39±0.71	1.172	0.313	
	College Adaptation	3.29±0.57	3.08±0.46	3.04±0.53	2.376	0.097	
	Academic Adaptation	3.16±0.49	2.92±0.46	2.97±0.50	2.480	0.088	
	Social Adaptation	3.25±0.78	2.30±0.59	3.10±0.50	1.575	0.21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26±0.51	3.09±0.51	2.94±0.69	2.930	0.057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48±0.80	3.30±0.59	3.17±0.75	1.877	0.157		
Rolling Admission	Stress	0.50±0.34	0.62±0.35	0.68±0.47	2.495	0.086	
	- Economic problem	0.69±0.64	0.80±0.73	0.75±0.72	0.320	0.727	
	- Relationship with friend	0.12±0.38	0.08±0.25	0.18±0.53	0.665	0.516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40±0.55	0.54±0.57	0.61±0.68	1.213	0.301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08±0.26	0.25±0.50	0.30±0.54	2.657	0.074	
	- Sense of value	0.68±0.78	0.70±0.63	0.88±0.81	0.811	0.447	
	- Relationship with family	0.41±0.70	0.29±0.45	0.44±0.71	0.697	0.500	
	- Academic problem	1.10±0.53	1.65±0.69	1.64±0.75	10.344	0.000	b>a,c>a
	Major Satisfaction	3.60±0.61	3.51±0.48	3.56±0.45	0.481	0.619	
	General Satisfaction	3.60±0.72	3.74±0.54	3.85±0.56	1.669	0.192	
	Perception Satisfaction	4.14±0.70	4.13±0.62	4.20±0.59	0.119	0.888	
	Curriculum Satisfaction	3.26±0.77	3.11±0.75	3.08±0.78	0.269	0.764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41±0.73	3.06±0.91	3.22±0.85	2.237	0.111	

	Career Identity	2.13±0.64	2.31±0.60	2.40±0.70	1.812	0.167	
	College Adaptation	3.20±0.38	3.08±0.41	3.11±0.41	1.118	0.330	
	Academic Adaptation	2.97±0.39	2.89±0.43	2.94±0.44	0.544	0.582	
	Social Adaptation	3.09±0.53	3.04±0.55	3.15±0.45	0.520	0.596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08±0.50	2.89±0.55	2.86±0.59	2.255	0.109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65±0.64	3.53±0.65	3.48±0.65	0.799	0.452	
Non-Curricular Admission	Stress	0.33±0.23	0.68±0.42	0.63±0.48	7.664	0.001	b>a,c>a
	- Economic problem	0.54±0.61	0.60±0.58	0.61±0.56	0.115	0.891	
	- Relationship with friend	0.03±0.13	0.22±0.46	0.19±0.49	2.059	0.134	
	-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03±0.08	0.55±0.62	0.80±0.84	12.848	0.000	b>a,c>a
	-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0.17±0.41	0.28±0.56	0.22±0.48	0.411	0.664	
	- Sense of value	0.26±0.34	0.98±0.69	0.90±0.90	11.118	0.000	b>a,c>a
	- Relationship with family	0.25±0.44	0.48±0.57	0.20±0.33	3.127	0.049	
	- Academic problem	1.03±0.68	1.67±0.72	1.52±0.85	6.640	0.002	b>a
	Major Satisfaction	3.99±0.56	3.17±0.65	3.40±0.49	16.640	0.000	a>c>b
	General Satisfaction	4.00±0.58	3.24±0.87	3.69±0.66	9.220	0.000	a>b
	Perception Satisfaction	4.46±0.67	3.68±0.76	3.95±0.72	9.982	0.000	a>b,c
	Curriculum Satisfaction	3.70±0.68	2.91±0.75	3.20±0.67	10.233	0.000	a>b,c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77±0.73	2.87±0.86	2.74±0.64	16.104	0.000	a>b,c
	Career Identity	2.02±0.60	2.29±0.62	2.25±0.46	1.978	0.145	
	College Adaptation	3.41±0.37	2.84±0.40	2.87±0.36	21.871	0.000	a>b,a>c
Academic Adaptation	3.19±0.33	2.81±0.39	2.88±0.30	10.669	0.000	a>b,a>c	
Social Adaptation	3.38±0.43	2.81±0.59	2.97±0.46	10.677	0.000	a>b,a>c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17±0.49	2.65±0.57	2.71±0.55	8.522	0.000	a>b,a>c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90±0.58	3.07±0.65	2.94±0.57	21.937	0.000	a>b,a>c	

a: freshman ,b: sophomore, c: junior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있는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을 입학전형 및 학년별로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개 지역 소재 3년제, 4년제 간호대학 중 10개 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결과 중 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의 평균으로 환산한 스트레스 평균이 0.79점이었다. 그 중 학업문제가 1.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문제가 월등히 높음(1.335~1.464)을 보여주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Seo[2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평균이 0.80점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결과는 정시 전형, 수시 전형 및 비교과 전형 모두 0.5점대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1]의 연구에서는 1학년 1.71

점, 2학년 1.81점, 3학년 1.7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년간의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온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일반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외에 병원이라는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임상실습과 교과수업을 병행하는 특수한 교육과정, 국가고시 부담감,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기술한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바, 간호대학생만의 독특한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스트레스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교육과정에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체계화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10].

전체 학년의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학년, 2학년의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 Lee와 Choi[26]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 6명을 심층면담 하였는데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1학년 비교과 전형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정시 및 수시전형 보다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과 Oh[27]의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이 3.82로 나타났다. Oh[28]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조사에서 1학년 3.54점, 2학년 3.21점, 3학년 3.55점으로 보고하였으며, Jung, Jeong과 Yoo[6]도 1학년 3.41점, 2학년 3.59점, 3학년 3.68점으로 두 연구 모두 학년 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oi[7]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1학년 3.93점, 2학년 3.71점, 3학년 3.75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게 나왔으며, 또한 학년 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Park과 Oh[27]의 연구보다 평균이 낮았으나 Oh[28]의 결과보다는 평균이 약간 높았으며 1학년이 가장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ark과 Choi[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근거했을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나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했는지, 또한 입학 시의 만족도 등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서 입학 시 만족도 비율과 본인이 대학 입학결정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학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부터의 진로지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과 2학년에서 입학전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의 경우 비교과 전형이 수시 전형에 비해 높았으며, 2학년은 수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에 비해 높았다. 1학년의 경우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5]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공만족도 3.61보다 높았다. 이는 Shin[1]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 전형이나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1학년 비교과 전형에서는 전공만족도의 하부요인 중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정도인 인식만족이 4.46점으로 특히 높았다. Jung, Jeong과 Yoo[6]와 Oh[2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들 연구에 비해 높았다.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교과 전형에서는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학년 비교과 전형의 경우

평균이 1학년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며, 교과만족과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의 만족도인 관계만족이 2.91점, 2.86점으로 1학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계만족의 경우 3학년 비교과 전형에서도 2.7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Jung, Jeong과 Yoo[6]의 연구에서도 2.9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2학년에서의 낮은 전공만족도는 Oh[28]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비교과 전형 입학생의 경우 신입생 모집 시 1박 2일간 심층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비교과 전형 1학년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학년부터 시작되는 전공교과목 이수 부담감, 해외취업의 필수요건인 어학 목표달성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비교과 전형 2학년에서의 전공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스트레스 하위요소 중 학업문제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에서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보이며, Heo[29]의 연구에서 제언한 전공과 관련하여 체계적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적용도 유용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와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5]의 연구에서는 2.77점이었고 3년제 간호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과 Choi[30]의 연구에서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학년 2.30점, 3학년 2.26점이었으며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Jung, Jeong과 Yoo[6]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였으며 1학년 2.58점, 2학년 2.67점, 3학년 2.6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높았다.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Jung, Jeong과 Yoo[6]은 학년이 높아지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높을수록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행동

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졸업 후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년별로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별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서는 2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전형별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서는 비교과 전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im[12]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n과 Bae[2]의 연구에서도 학년별로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 등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한 결과 1, 2, 3학년 모두에서 정시전형 입학생이 수시전형 입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3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학년의 경우 비교과 전형 학생보다 정시 전형 및 수시 전형 학생이 더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2]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4학년 보다 3학년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 3학년보다 1학년의 대학생활적응정도가 높았다.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도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없었으며 대학생활적응 평균이 1학년이 가장 높았다. Oh[28]의 연구에서도 학년간의 유의한 차는 없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3학년보다 2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Kim[13]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에서 총점이 가장 높았고 3학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비교과 전형의 경우 대학의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산업체 요구에 부합되는 학생을 선발하였으므로 일정 점수로 대학을 지원하는 타 전형 학생보다는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1학년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 비교에서 비교과 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평균이 높았다. 특히 하위영역 중 학업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학년의 경우 비교과 전형 학생이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 학생 보다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 중 특히 일반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화 장애 수준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응

과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학환경적응에서 낮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비교과 전형에서 2학년의 스트레스 평균이 1, 3 학년 보다 높았고, 특히 스트레스 하위요소 중 학업문제 수준이 높아 2학년부터 시작되는 전공 기초 및 전공필수교과의 수강 부담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Shin[11]은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 시에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뿐만 아니라 높은 대학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자아탄력성, 적극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감소까지도 초점을 맞추어 상담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교과 전형의 2학년 재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조절전략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비교과전형 3학년의 경우 전공만족도 하위요소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및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소인 대학환경적응 등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대학환경에서 정시전형 및 수시전형 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학년을 위한 지도교수 상담 및 지지체계 확립과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애착심 고취 등 대학환경에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에 따라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입학전형에 따라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여 간호학과 입학전형 선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한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학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분석에 한계점이 있음을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여 입학전형에 따른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년별로 보았을

경우 1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증한 결과는 전공만족도에서 비교과 전형이 수시 전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수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보다 높았고, 대학생활적응은 정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수시 전형이 비교과 전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학년에서는 입학전형에 따른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높았다. 진로정체감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적응정도가 높았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 때 첫째, 정시 전형에서는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수시 전형에서는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비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2학년이 1학년보다, 3학년이 1학년 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 2학년 순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입학전형에 따라 학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Shin, "The Influence of Gende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ype of University Entrance on Scholastic Achievement and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2.
- [2] M. H. Han, S. M. Ba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mission Type in One Nursing School", *J Korean Acad Soc Nur Educ*, Vol. 21, No. 1, pp. 46-53,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1.046>
- [3]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5.6.5.143>
- [4] N. Y. Kim, A. R. Lee, J. H. Lee, C. J. Jung, J. Y. Choi, H. S. Han,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College Entrance Type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A Case of K-University Freshman in Department of Nursing in the City of P-", Bachelor's dissertation, Kyungbok University, pp. 1-36, 2014.
- [5]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937>
- [6]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0, No. 1, pp. 27-36,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027>
- [7] K. Y. Park, H. J. Choi,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2, pp. 279-286, 2015.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2.279>
- [8] Y. J. Kim, Y. Y. Kim, S. M.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9-47,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9.39>
- [9] J. H. Lee, "The Convergence Study of Life Stress and Health Clinic User Satisfaction in Female Students: focused on the One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89-96, 2016.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5.089>
- [10]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11] J. Y.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D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4.
- [12] B. N. Kim, E. G. Kim, "The Difference of Student Adaptation Level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upon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1, No. 3, pp. 5-25, 2015.
- [13] J. H. Kim,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Vol. 17, No. 1, pp. 81-100, 2016.
- [14] Faul, F, Erdfelder, E, Lang A. 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 [15] K. K. Chun, K. H. Kim, J. S. Le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16]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17]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18]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19] Holland J. L., Daiger D. C., Power P. G., "My vocational situation", pp. 404-464,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0
- [20] B. H.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21] Baker R. 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22]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 [23]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24] M. J. O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Meaning in Life on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 [25] M. H. Jo, H. W. Lee, "A Study on Learning Competencies of University Freshmen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3, pp. 163-179, 2014.
- [26] D. Y. Kim, S. Y. Lee, H. R. Choi "Analysis of Campus Life Adaptation by each Different Types of College Admissions", *Types of Admission Research*,

Vol. 4, pp. 93-121, 2015.

[27]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28]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3,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73>

[29] S. E. Heo,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85-96, 2016.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4.085>

[30] K. N. Kwon, E. 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19-28, 2010.

강 지 순(Ji-Soon Kang)

[정회원]



- 2004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1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8월 : 경북대학교 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1. 재활간호 2. 간호교육 3. 아동간호

서 금 숙(Kum-Sook Seo)

[정회원]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5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간호교육최고위과정 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1. 성인간호, 2. 질적 연구

저자소개

김 정 애(Jung-Ae Kim)

[정회원]



- 1988년 2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1993년 8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보처리학과 (이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1 성인간호, 2 간호정보, 3 간호교육